

# 겨울 산불 '초비상'

광주·전남 일주일새 5건…여수·고흥 등 대형산불위험 주의보

## 대책본부 운영 예방 활동 강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광주·전남 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여수 지역에서 지난 20일부터 10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이어, 28일 밤 9시를 기해 곡성·구례·고흥·보성·광양·순천·완도 등 전남 8곳에 건조주의보가 추가 발효되는 등 산불 위험이 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오후 5시를 기해 광주·전남과 수도권 등지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동해안·영동 지역의 경우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일주일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5건, 전국에서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커진 데 따라 산불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각 기관은 산불 취약 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담당 구역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경우,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6분의 1 이상을 비상 대기시키는 등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산림청은 또 지난 21일부터 여수와 고흥, 장흥, 강진, 완도 등지에 잇따라 대형산불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효성도 30% 아래로 떨어지고 초당 11m를 넘는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오후 3시 기준 산불 위험 등급은 광주·서·남·북구가 '다소 높음', 강진, 곡성,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순천, 완도, 장흥, 화순이 '다소 높음', 여수는 '높음'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서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고흥군 점암면 모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불은 오후 1시 20분께 완전히 꺼졌으며 인명 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께에는 고흥군 금산면의 한 야산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다. 불은 임야 0.4㏊를 태우고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60대 산불진화대원 1명이 고압수에 눈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때 고흥군 일대에는 대피 및 입산 주의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는 완도군 신지면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으며, 오전 10시 20분께 광양시 진상면의 한 야산에서도 예초기 작업 중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광양시 옥곡면의 한 야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청 국가동원령이 내려지는 등 축구장 70여개 규모에 해당하는 49㏊의 임야가 소실됐다.

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산불 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재난 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 두렁 태우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백은선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눈도 거의 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응 단계도 강화될 수 있다"며 "폐기물 소각이나 화목 보일러 사용 등 생활 속 환경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명 기자 yoon@kwangju.co.kr

## 대법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해 배상하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5·18 당시 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 관계자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1년 지씨가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펴내면서 자신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서술을 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원고 12명에 대해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같은 내용을 저작권법에 원고에게 1회당 200만 원 주가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최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5·18 왜곡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두촌쿠 열풍 위생 상태는

28일 광주시 북구 위생과 위생관리팀 직원들이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두바이 쪽득 쿠키 판매점에 서식품 보관과 사용 여부 등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na@ kwangju.co.kr

## 치솟는 금값에…0.5g 돌반지·0.2g 금 펜던트 반지 등장

### 가격 부담에 돌잔치 문화 바뀌어 중량 줄이고 형식적으로 금 넣어 지역금은방 손님 되레 줄어 울상

금값이 1돈에 100만원 선을 넘어서며, 돌잔치 선물의 상징이던 '돌반지' 문화까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1돈 반지를 기본으로 선물하던 분위기였지만, 치솟는 금값 때문에 최근에는 1g·0.5g처럼 중량을 줄인 반지가 온라인 선물 플랫폼에 등장할 정도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귀금속 업계는 오히려 매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하고 범죄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어 '시름시름' 없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한국금거래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금(24K·3.75g) 1돈 가격은 지난해 8월 1일 64만4000원에서 28일 기준 105만4000원까지 올랐다. 지난 21일 1돈 100만원 선을 돌파한 이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금값 급등으로 돌반지 구매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면서 중량은 줄이고 형식적으로 금을 넣는 방식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총장로 일대 금은방 20여곳



0.2g 금 팬던트 반지

거나 중량을 줄이면서 판매고가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마진폭도 5%에 불과해 반지 하나 팔아도 한 돈에 2000원, 3000원 남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30년간 귀금속 장사를 해온 배남수(55)씨는 "금값이 최고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매출이 거의 없다"며 "예전에는 집에 있는 금을 팔려 오는 손님이 많았고, 그 차익으로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흐름도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47년째 귀금속업을 하고 있는 허미석(62)씨도 "지난해만 해도 한 달 매출이 3000만~4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9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80% 가까이 줄었다"며 "최근에 반지를 맞추는 적 하다가 흡족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서 이젠 젊은 손님을 받는 것도 무섭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예 폐업하거나 금거래소로 전향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14년째 쥬얼리 멋을 운영중인 정현선(58)씨는 "연세가 많으신분들도 있어 폐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매년 열 곳 중 한 곳은 폐업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상황"이라며 "상품이 안팔리니 액세서리 판매를 접고 금거래소만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400억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 수사관 5명 감찰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던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광주지검이 압수물을 관리하던 담당 수사관 5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찰수사관 5명을 상대로 분실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감찰 대상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 인계를 하던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현 시세 기준 407억여원 상당)를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이 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잔액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잔액 조회를 시도하다가, 공

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 중이다.

검찰은 매달 진행하는 정기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확인하고, 잔액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국고 환수 절차를 준비하면서 잔액 조회를 하다 뒤늦게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내부 직원이 고의로 비트코인 탈취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마른다운 통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거래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험(해당 특약 기준)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 511-2901~3